

📖 전례안내

	합동미사	
	3월 3일	3월 10일
해설	이은희	송연주
독서	신준철, 정건호	유수빈, 유수현
복사	유용재, 유수현	현종한, 김은혜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본당 소식

1. 사순시기 전례 및 생활

자선(慈善)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자선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자선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성체성사를 통한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선의 의미를 생각하면 무언가 거창한 것으로 여기거나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자선은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도울 수 있고, 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복지시설이나 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선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선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자.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8시에 있습니다.

2. 본당 대청소 공지

일시: 3월 10일 주일미사 후 각 구역별

3. 사순 판공성사 공지

일시: 3월 17일 주일미사 전후

4.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1	Lector2	Altar
3/3/2024				Suhyun Yoo
3/10/2024		Subin Yoo	Suhyun Yoo	Mary Kim
3/17/2024	판공성사			Dae San Kim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교리 상식 - 십자가

十자 모양의 표로 고대에는 형벌 도구 혹은 종교적 상징이었으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는 그리스도교를 나타내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모양 -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의 가장 흔한 모양은 두 나뭇조각이 종목(縱木)의 한 중간에서 교차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횡목(橫木)과 종목이 같은 길이인 경우(그리스식 십자가)와 횡목이 짧고 종목의 아래쪽이 긴 것(라틴식 십자가)이 있다. 또 변형으로는 종목이 횡목 위로 돌출하지 않은 성안토니우스 십자가(cruce commissa)나, 두 나무가 비스듬히 교차하고 있는 성안드레아 십자가(cruce decussata), 죄표(罪標)와 발판을 나타내는 이중십자가(cruce gemina) 등이 있다.

십자가상 - 십자가상은 인류의 속죄(贖罪)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달린 십자가로, 이것은 약 7세기경부터 만들어졌는데, 13~14세기경에는 다만 미술품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 가톨릭십자가고상과 개신교 십자가의 차이점 ◆

십자가는 구원과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집트와 고대 동방에서 사형에 처하던 도구(형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 죽음 후, 십자가는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단’, ‘구원의 승리’ 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으며, 그분의 몸에는 오상(五傷: 다섯 상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십자가를 십자 고상(十字苦像)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누구나 이 십자 고상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시고, 바라볼 때 마다 그리스도의 강생 구속과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십자가에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 받고 돌아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냥 십자가만 사용합니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성서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상이나 성모상들을 만들어 거기에 절한다며, 우상숭배나 다름없다며 논박하기도 하는데 십자가상이나 성모상등 성상들은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을 도와주는 성물이지만 우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선교위원회

✦ 사귄, 섬김, 나눔의 공동체 ✦

(나해) 사순 제3주일 (2024년 3월 3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박재희 요한	216-861-4630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캐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캐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